

‘코로나19’ 2차유행 대비 “집단감염 감시체계 가동”

“바이러스 전파 억제 지속하며 여러 사각지대 감시 최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올 가을 2차 유행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부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집단감염 감시체계 가동’을 최우선 방안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2차 유행을 대비해 다각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2차 유행이 안 오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억제와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큰 만큼, 정부는 집단 발생 방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특성상 한 번 집단발병이 시작되면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 곳의 감시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테면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수도권지역 요양병원과 관련해 10명 단위 취합검사를 통한 표본조사를 시행하는 등 ‘조용한 전파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종사자와 간병인, 최근 2주내 입원환자 그리고 기입원환자 중 유증상자가 검사 대상으로 혹시 모를 집단감염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서 한꺼번에 많은 검체를 빨리 검사할 수 있는 ‘취합검사법(Pooling)’ 프로토콜을 마련하기도 했다.

취합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남은 검체를 개별 재검사해 감염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다만 음성이면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검사를 한 번에 마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검사법은 이주노동자, 입대 훈련소 등에도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집단감염 취약지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쪽방 거주자와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조치 방안도 이번 주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만큼, 국민들의 방역지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긴 연휴기간도 다가오고 있지만 5월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며 “가급적 모임이나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하고 친목 모임이나 회식도 삼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윤호 기자



사회안전망 확대 촉구하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28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안전망 전면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31번 환자보다 더 긴 입원 환자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고령·건강악화일수록 길어져”

정부가 31번 환자(61·여)보다 오랜 기간 입원 중인 환자가 있다고 밝히며 고령이거나 건강악화 정도가 안 좋을수록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는 대구의료원에 입원한 2월17일부터 67일간 치료

를 받고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24일 퇴원했다.

과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31번 환자만큼 오래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있고 더 오래 있는 환자도 있다”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격리 해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도 역시 높아질수록 격리 해제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이 지난 20일 기준 신고된 격리해제 환자 8235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치료기간은 최소 2일에서 최대 59일까지 평균 25일로 나타났다.

31번 환자의 병원입원 기간인 67일은 이 평균치의 2배를 훌쩍 넘었고, 최대 59일을 기록했던 환자보다 8일이 더 길다.

코로나19 ‘사각지대’

외국인 근로자·노숙인

정부 “이번주 대책 발표”

방역당국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에 대한 대책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노숙인이라든지, 쪽방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특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어떻게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주 중에 내용을 마련해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싱가포르 사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방역 모범사례로 꼽히는 국가였지만, 최근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27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1만4423명을 기록했다.

인구가 580만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볼 수 있다. 싱가포르에는 이주노동자 30만여 명이 기숙사 수실 곳에 모여살고 있으며, 거주 시설이 좁고 밀집되어 있어 집단감염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미얀마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인숙·리빙텔 등 집단감염이 높은 시설에 머무르면서 자기격리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루 10만원의 시설격리 비용에 부담을 느껴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노숙인과 생활시설에 머무는 노숙인, 쪽방 주민 규모는 1만6465명으로 집계됐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은 취약계층이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기 어렵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노숙인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는 일반 주민에게도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질 위험성이 높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기숙사 수용여부나 시설격리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 단신 ◆

진도서 어망 제거 민간잠수사 그물에 걸려 사망

지난 27일 오전 11시47분쯤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서 민간잠수사 A씨(54)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2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서망항에 계류 중이던 9.77톤급 어선 선미에 걸린 어망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10분이 지나도록 A씨가 물에서 나오지 않자 선원이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어선 아래 그물에 걸려있던 A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마스크 팔아요” 중고 사이트서 사기행각 30대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온라인 상에서 마스크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월18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B씨(35·여)로부터 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최근까지 마스크와 난텐도 온라인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28명으로부터 1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에도 온라인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에 미련 여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차량 구매자에 웃돈 요구 30분 감금 중고차 업자

허위 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해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매하고 감금까지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인천 서구의 모 중고차 매매단지 판매원 A씨(22)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13일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 단지에서 차를 구매하려 온 C씨(50)와 중고차 매매를 계약한 후 추가금 2880만원(36개월 할부)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를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C씨에게 2018년식 코나 차량을 48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며 C씨를 차량에 태운 뒤 본색을 드러냈다.

이들은 C씨에게 추가금이 있다며 2880만원을 요구했고, C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언을 하며 30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탄 차량이 신호대기에 걸린 틈을 타 차량 밖으로 도망쳐 나온 C씨의 신고로 B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한 A씨는 지난 4월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차량 판매는 인정하지만, 감금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천시 술 취해 80대 아버지 때려 숨지게한 딸

충북 제천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80대 친아버지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A씨(54·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쯤 제천시 화산동 자택에서 “아버지 B씨(81)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숨진 B씨의 머리와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손속폭행치사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술이 깨고 나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